

한나라-민주 '4월 임시국회' 합의 쟁점과 전망

일정 잡았지만 갈 길은 멀어

"민생현안+기업규제 완화 등" vs "민생현안만" ... 추경예산 놓고도 이견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5일 국회 문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같은 길은 멀어 보인다. 다뤄야 할 법안처리의 범위와 우선 순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결론은 민생법안과 거리는 있어 보이지만 경제를 살리는데 결정적 과급 효과를 물고오는 사람들은 점에서 더 이상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구 을 내수촉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민생법안 이외의 현안 처리는 18대 국회로 넘겨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미 FTA는 충분한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된 이후 신중히 추진해야 하고 친재벌적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 역시 시급을 두루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추경편성 예상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 한·민주 임시국회 현안 입장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생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 저발법(일명 혜진·예술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과거 3년간 물가상승률의 5배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서민 물가안정 관련 법안,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이동보호특별법
한미 FTA	친선(4월 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계획)	조건부 친성(국내 산업과농업분야의 피해보상 대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기업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글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부자총진특별법 등	사인별 심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경우 웬만한 민생법안은 수십 개 처리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고 보고 국회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경우 17대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FTA로 피해를 입는 국내 산업과농업분야의 피해보상 대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한 이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조건부 친선론을 유지하고 있다.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쇠고기 개

쟁력을 살리고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철저히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어 과거 성장위주 경제의 폐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생법안을 놓고도 각론에 들어가면 양측의 간극은 넓다. 한나라당이

미성년자 피해방지 저발법(일명 혜진·예술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등

법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이 주안점을 둔 민생법안은 과거 3년간 물가상승률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서민 물가안정 관련 법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FTA 피해분야 보완대책, 아동보호특별법 등이다.

양측의 이 같은 대립은 총선 이후 정국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힘겨루기의 성격이 짙어 임시국회 기간 내내 대립과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선 이후 첫 앙당 원내대표회담을 연 가운데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대표, 안대표,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연합뉴스

민주, '우리당 색깔' 빼기 안간힘

통합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색깔' 빼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전히 통합민주당 보다는 '우리당 후신'이라는 이미지가 작용함으로써 참패했다는 공감대도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당선자 간담회에서 도 자기반성과 함께 쇄신을 통해 향후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들은 철저한 반성과 자체 동력에 의한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15일 "열린우리당이 국민에 비치는 이미지를 빨리 벗

지 않으면 안된다"며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철학과 실천이 일치하는 구체적인 대안과 고민을 내놔 능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 민주당계 측은 반성의 결과물로서 당내 권력 주의 이동을 거론하고 있다.

박주선 당선자는 이날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통합민주당이 옛 영화를 찾기 위해선 세대교체, 일부 교대가 필요하다. 국민정서를 반영해 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권력지도를 새로 그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계파 간 이해차이가 아닌 국민의 소리"라고 전제하면서 "(그동

안) 말만 떠들려웠지 국민에게 느낌을 준 게 없다. 이제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구호가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조 최고위원도 "지도부 구성에 호남이 역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 민주계로의 권리이동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비판적 인 견해도 있다.

이석현 의원은 "전국 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하기 위해 수도권에 무게가 질려야 한다"며 "호남당"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뉴타운 사기극" 파상 공세

한나라당은 민주당 전신인 노무현 정권의 최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미국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룬다면 국익에 치대한 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속속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야권은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뉴타운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경제상황이 허락한다면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

소화해 주가 지정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가 갑자기 주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선회했다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서울 지역에서 뉴타운 때문에 진 지역이 많다"며 뉴타운 지정을 공약한 한나라당 후보들

을 '선거 사기꾼'이라고 맹비난한 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 시장은 자신에게 뉴타운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인 죄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다"며 "선거 후 4월 만에 부인할 일을 왜 선거 전에는 부인 못 하고 침묵, 방조했느냐. 방조죄 책임을 물겠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상수 "한미FTA 비준안 표결해서라도 처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꼭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표결은 각오하고서라도 통과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17대 국회에서

만 선별적으로 처리하자 하면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한미 FTA, 기업 규제 완화는 민생법안이 아니라며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 없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이

살아나는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민주당 전신인 노무현 정권의 최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미국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룬다면 국익에 치대한 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속속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교사 임용시험 폴리지 않으십니까?
꽉내영교육학이 자신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내영교육학 개강 5월 2일

강의시간: 월 10:30~18:00 · 토 09:00~18:00, 영상반 / 월, 화, 수 18:10~22:00 ▶ 수강료: 기본이론반 120시간 (28만원)

* 꽉내영고시학원은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많은 문제를 적중 시킨다'는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오직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서 합격까지 - 무료상담 「매주 (화,금) 11시, 3시, 7시」

개설 강좌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전공국어 전공생활 전공물리

※ 꽉내영고시학원은 선생 개강 5월 2일 원서면 접수 7월 최종 11일 원서면 접수 개강 5월 11일 최종 7월 11일

최종 7월 11일 원서면 접수 개강 7월 11일 원서면 접수 개강 7월 11일

강의장소: 대전 529-0090 전화 http://www.haeyoung.com

광주 029-616-1646

신입 및 경력직원 (설계·감리) 모집

당사는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 및 소방설계감리업체로써 금번 신규사업기술용역 참여등 사세확장과 더불어 21세기를 함께 할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분 및 자격

구 분	분 야	인 원	해 당 공 통 사 항 등
감 리 분 야	○신규 : 건축·토목 ○ 경력 : 건축·기계 토목·전기 소방·통신	각 분야 ○명	○신규 : 설계, 시공, 감리경력이 4년 미만인 자 ○ 경력 : 감리사이상 / 전기·고급이상(즉시투입가능자) 통신·소방·비상주도기능 ○자격증소지자로써 최근 기술보수교육 5일 이상자 우대
설 계 분 야	○전기 및 소방분야 설계	각 분야 ○명	○전기 또는 소방분야 설계가능자로써 자격증소지자 우대 ○전기기술사소유자 1인 급구

2.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다. 자필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및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연락처, 희망연봉, 편의사항)
라. 경력확인서(감리 :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전기 : 전력기술인 협회, 기타 : 해당경력기관)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관 : 2008년 04월 16일부터 해당분야 인원 충원시(04월 30일)까지
나. 접수처 : 우편번호 : 502-180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14(4층)
문의전화 : 062-382-7560 (주)지에이엔지니어링 총무담당자 F A X : 062-382-7565
E-mail : tohyung3@hanafos.com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FAX전송 및 본인 직접접수 가능합니다.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GLOBAL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소방설계 및 감리업]

주택관리사

★ 2010년 ★

의무채용

★실시확정★

4월 무료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11회

9월 7일 시행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현대고시학원

(광주 등록번호) 062)222-6790, 232-1088

=가장 안정된 직업, 늦었지만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상한연령폐지=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 특별한 개설, 개강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09:30분 강의시작반 모집 ※

5월 9급 지방직대비

=문풀반 개강 : 4월 21일 ~

① 5월 1일 (주) 새만금 (현대미래타운)

② 5월 1일 (경) 대전 120만원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십시오!! =

광주 등록번호 뒤 (광주초고등학교)

222-4560